

민원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번호	20250914-00001				
제 목	20250912-00001 건의 및 당부(건) 관련 현장구청장실 제언(1개 제언)에 대한 추가 건의 및 당부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5-09-14 01:40:54	답변여부	접수
민원 발생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처리부서					
첨부파일					

- 내용
1.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현장구청장실 제언) 사고 위험 상존 가정에 대한 생명안전 안심지원 사업
(1) 2025.08.28 1차 오프라인 제언 후, 담당팀장과 상담 후 소관부서 조정하여
2025.09.03 2차 온라인으로 다시 제언.
※ 담당팀장 제언인의 사업제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까지 표명하였고, 소관부서를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행정문화국 예하부서로 해당 제안사안을
이첩하여달라는 제언인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수긍하였음.
(2) 2025.09.16, 16:00 안암동 현장구청장실 행사 예정.

3. 제언 사업의 기본 취지 및 내용 설명

(1) 해당 제언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자는 것에 그
목적を 두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구민 한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인명이 위급한 사고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과 그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이후 대상가정으로 기재)으로
선별하여, 사전 가정의 개별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며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 위급한 사고와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 (2) 대상가정 선별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별적 기준이 없이 인명이 위급한 가정과 가족구성원으로 선정함에 지원 대상의 범위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기에 범위와 영역이 보다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 (3) 차후 비용지원과 처리에 있어서도 대상가정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무상으로 구분하여 처리 되어지기에 또 다른 사회적 반감과 불만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구 예산의 보이지 않는 손실과 낭비 역시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이어서 성북구 내 행정기관과 의료기관(구청, 경찰, 소방, 병원, 기타기관 등)등이 철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가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정해진 네트워크 시스템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 (5)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구청의 소관부서(업무종료 시 종합상황실)가 메인센터 역할을 하여,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한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여 자칫 시간을 허비하고 지연하여 인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치료완료 단계까지 지원을 하며, 구청이 메인센터 역할로서 사후 피드백(후속 관리 및 정보공유)까지 하는 것입니다.
- (6) 제안한 사업(가칭: 우리동네 생명안전 0순위)은 위와 내용으로 기존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지원 제도’와는 그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기본 개념조차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 (7) 또한, 기존 제도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에서 일정 부분의 업무를 쪼개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안인이 확인하였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와 내용조차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과 구청에서 쪼개어 맡고 있는 일부 업무(중증장애인) 역시 부족한 예산의 이유로 선순위 대기자가 상당히 많고 지연이 계속되는 것으로 역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과 담당팀장께 내용 전달을 하면서 그 소관부서를 복지교육국이 아닌 행정문화국 예하 부서로 지정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구청장과 행정문화국장께 정확한 사실을 보고한 후,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알았다고 답변 주셨으니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8) 또한, 위 (6)에 드린 설명을 비춰 봤을 때, 제안인이 제안한 사업의 검토와 소관부서 지정에 있어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등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위 (6)의 사유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제안한 사업은 기존 제도(응급안전 지원제도)처럼 소득과 재산으로 차별(또는 차등)하여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원비용처리 역시 무상이 아닙니다, 현재 응급안전 지원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선순위 대기자 역시 지원이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있지 못하고 제 때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제도는 유명무실하고 무용지물인 제도입니다.
- (9)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의 발상 근원과 대상 범위와 기본 취지 그리고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조차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분지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존의 제도(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지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도 못한 채 예산부족과 시청과 구청의 대상 조개기로 지원조차도 올바르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핍 사항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 (10) 무엇보다도 제 가정이 겪었던 지옥과도 같았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안전 지원사업을 제안드린 것이며,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국한되지 않게끔 대상 범위 역시 깊이 고려하여 확대하고 확장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기본 취지(생명안전)를 명확히 하여 대상 선정 기준에 반영을 하였기에 재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과 비용처리의 문제 등을 발생치 않도록 깊이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 (11) 저희 가정의 오랜 고통스러운 경험에 있어 각 해당 행정기관과 치료기관 역시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력체제가 없었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점도 보았기에 해당 사업

제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북구 각 기관들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사람(구민)의 생명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각 기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삶과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4. 최종 건의 및 당부 내용

(1) 위 관련근거에 안암동 현장구청장실 행사가 2025.09.16.(화), 16: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제안인의 생명안전 안심지원사업을 주민제안으로 전환하여 반드시 검토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안인은 1주일 넘게 소관부서 재지정과 기존 제도(응급안전 안심지원)과의 구분을 말씀드렸고, 구청장과 행정문화국장께 사실대로 보고하여 검토와 판단을 이어가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에 담당팀장은 알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 아울러, 2025.09.16. 현장구청장실 행사에 있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구청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중증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보호자)에 대한 아무런 이유없는 위력행사이고 기본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께서는 이에 성찰하고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3) 또한, 채택되어 공개된 제안(안암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 안암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또한, 간단한 시설물 설치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안암병원과 성북구청의 스마트의료 등 홍보 시너지 효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적혀있는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가 말씀드린 고통스러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조금은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의료 체계와 구청과 병원의 홍보 효과가 사람의 생명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주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4) 작년(2024년) 5월 중순경 제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아들이 도전행동으로 인해 오른쪽 하완에 신경과 근육이 보일 정도로 15cm의 살이 찢어지는 심한 절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과 함께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 갔었지만,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의 이유(치료 협조여부 불명확)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하던 의사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패혈증으로 팔을 자르거나 죽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주 어렵게 일반외과병원에서 의료용 스템플러로 찢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9월도 마찬가지로 7cm정도의 위와 같지는 않지만 절상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원 저 병원(고대안암병원 포함) 응급실에서 거절을 당했고 가정에서 한 달 넘게 소독약, 연고와 붕대로 치료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치매노모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인지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병원과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찾아지고 크게 발생할 때마다 구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도 구청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구청 공무원께서 당시 어떻게 응대하고 처리 하셨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제안은 제 가정에 국한된 제안이 결코 아닙니다. 제 가정에는 이미 겪었던 고통스럽지 못해 죽지 싶었던 현실과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그렇기에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다른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떠올리며 제안드린 것입니다. 이에 성북구청에 계신 이와 관계된 모든 공무원(구청장 포함)께서는 있었던 사실을 똑바르게 인지하시고, 또다른 오해나 왜곡, 그리고 제안인 가정과 하나 남은 중증발달장애인 아들과 제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슴깊이 통감하시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공언한 '매니페스토' 기본 개념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구청 공무원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제안드린 사업은 지난 과거에 얽매어 또다른 잘못과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본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과 구청장께서는 과거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에서 이제는 탈피하시고 뒤를 돌아보며 스스로 한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으시길 당부합니다. 향후에는 또 스스로 한 일을 정면교사(正面敎師)가 삼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과거지사라 생각하고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이에 구청과 구청장께 별다른 적대감을 가지거나 분노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단지 구청에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계신 과거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 말씀드리고 사업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 이와 같이 건의와 당부의 말씀을 마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있어, 기왕 입으로 좋은 제안이라 답변 주셨으니, 현장구청장실 제안에서 주민제안으로 바로 전환하여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찰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

첨언 : 별도의 첨부자료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도 공익적인 내용이기예 공개로 건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구청장에게바란다 온라인 민원창구만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달받을 사람과 부서 : 구청장,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안암동주민센터, 기타유관부문과 부서 (필히 전달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